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남
Encountering Christ in Harmony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목적 응답
A Pastoral Response to Our Asian and Pacific Island Brothers and Sisters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Washington, DC

조화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남: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목적 응답’이라는 문헌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소속,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 (the Committee on Cultural Diversity in the Church)의 지시에 따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 (th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Island Affairs)가 마련하였습니다. 이 문헌은 2018년 6월 미국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전체 주교단에 의해서 주교단의 공식 성명서로 채택되었고 아래 서명자에 의해서 출판이 허용되었습니다.

몬시뇰 브라이언 브랜스필드 (Msgr. Brian Bransfield)
사무총장, 미국 주교회의 (General Secretary, USCCB)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인용문은 도미니코회의 어스틴 플래너리 (Austin Flannery, OP)가 편집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와 공의회 후의 문헌들 (Vatican Council II: The Conciliar and Post Conciliar Document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작권 © 1975,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MN, 출판자의 허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이 문헌에 사용된 성경 구절들은 뉴 어메리칸 성경 개정판 (New American Bible, rev. ed. © 2010, 1991, 1986, 1970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Inc., Washington, DC)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이 문헌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 즉 복사나, 녹음, 또는 정보저장이나 복원 체계를 포함한 전자 장치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무단 변형이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 48차 세계 소통의 날 메시지(Message for the 48th World Communications Day)의 발췌록, 2014년 1월 24일, 저작권 © 2014, 바티칸 도서 출판(Libreria Editrice Vaticana, LEV), 바티칸 시국; 성령강림대축일 성야 때 교회의 운동들에게 하신 연설(Address to the Ecclesial Movements on the Vigil of Pentecost), 2013년 5월 18일, 강론, 2012년 10월 11일, 저작권 © 2013, LEV. 허락받고 사용하였고,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저작권 © 2018 미국 주교회의, Washington, DC.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이 문헌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 즉 복사나, 녹음, 또는 정보저장이나 복원 체계를 포함한 전자 장치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무단 변형이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차례

머리말

도입

사목적 응답: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라는 부르심

I. 정체성

표현되는 신앙

정체성과 연동(連動)되는 신앙

교회 안에서 환대 받는다는 것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재능의 인식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통공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II. 세대(世代)

표현되는 신앙

효경

가족

세대를 가로질러 연동되는 신앙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III. 리더십

표현되는 신앙

리더십과 연동되는 신앙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IV. 신앙 안에서의 문화적인 만남과 대화

표현되는 신앙

만남과 대화를 통해 연동되는 신앙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결론

부록 1: 미국 내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

부록 2: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본당들에서 회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최종 보고서

부록 3: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사목을 위한 자료

부록 4: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협회들, 기구들, 그리고 운동들 (Movements)

머리말

사목적 응답의 배경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 성명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신자 현안: 신앙 안에서의 조화 Asian and Pacific Presence: Harmony in Faith (2001)” 는 전국 사목 계획의 수립을 권장했습니다. 이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지역 모임, 전국 사목 학회, 학습 세미나, 듣기 훈련, 전국 지도자 회담 (2006) 등,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계획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그룹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한 동안 지속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더욱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08 년, 미국 주교회의 소속으로 ‘교회 안의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와 사무국’,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 를 신설함으로써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목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13 년, 소위원회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사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3년 동안의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중동지역에서 온 동방전례를 거행하는 가톨릭 공동체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나 요구조건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들이 직면하는 현안과 일치하는 것이 많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 지역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사목 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간의 성과를 재정립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단체들을 대변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자문이사회로 구성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자문이사회는 전국 사목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는, ‘교회 내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안서를 미국 주교회의의 ‘우선 순위와 계획 위원회 (Committee on Priorities and Plans)’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제안서대로 진행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소위원회는 세 단계를 통해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삼 년 완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단계는 준비, 자문, 그리고 전국 사목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태에 관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제시하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들에 대해서 일 년간 연구할 사회과학자 팀이 고용되었습니다 (부록 1 참조). 이 연구는 최대 응답을 얻기 위해서 열세 가지 언어로 만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모았습니다. 게다가,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슈들과 주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몇몇 작은 그룹들을 만들었고, 미국 전역의 다양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우들과 대면 인터뷰를 다수 실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이라는 포괄적인 보고서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의 가톨릭 공동체들의 경험과 염원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연구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를 위한 전국 사목 계획을 개발하고 기안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증언을 제공합니다.

전국 사목 계획을 쓰는 동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와 ‘교회내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는 그 계획을 전국 사목적 응답 (National Pastoral Response)이라고 칭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남: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목적 응답’이라는 타이틀이 수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승인 과정이었습니다. 사목적 응답의 기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와 교회 내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 외에 미국 주교회의의 몇몇 위원회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교회 정기

총회의 안건으로 공식 채택되어, 주교단의 토의와 표결을 위해 미국 주교회의 행정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2018년 6월 14일, 정기총회는 투표를 통해서 이 사목적 응답을 받아 들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화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남’의 출판 및 실행입니다. 이 사목적 응답은 미국 내 모든 가톨릭 교구에 광범위하게 배포될 것입니다.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남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목적 응답

도입

미국 주교회의는 2001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신자 현안: 신앙 안에서의 조화 Asian and Pacific Presence: Harmony in Faith’를 출판했습니다. 이 사목 성명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요구를 알아내어 그에 대처하고자 하는 몇 십 년간에 걸친 노력의 열매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조화’는 대다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의 공통된 재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알리면서, 이들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사회적, 민족적 다양성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공유된 재능과 가치 중의 몇 가지는 강조할 만 합니다: (1) 다양함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가치; (2) 가족을 중시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 (3) 교육의 중요성; (4) 깊은 영성과 대중 신심의 전통; (5) 성직자와 수도자의 기여; (6) 오랜 전통을 가진 평신도 리더십. 동시에, 주교들의 성명서는 미국 사회가 아시아와 태평양 문화에 제기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 선입견과 함께 대체로 공동체적인 아시아 태평양 문화의 특질과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의 주된 문화 사이의 가치 충돌을 포함합니다.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공동체적 문화는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필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¹

¹ 사회학자들과 어떤 이들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보다 공동체의 필요와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를 집단주의 (collectiv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Geert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문화의 결과), 2001). 한 그룹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나 사람들 간의 상호 연결성은 각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 욕구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룹으로 일하고 다른 이들을 지원하며, 그룹의 최선을 위해서 행동하고, 가정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몇몇 공통된 특징들이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시오,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 (사목자의 문화 간 능력 함양하기) (Washington, DC: 미국 주교회의 [USCCB], 2010).

‘신앙 안에서의 조화’는 결론적으로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를 위한 전국 사목 계획의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목적 성명서가 나온 지 십 년 후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가 그간 발생했던 일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대표들은 이 소위원회의 후원 아래 모여, 다음 단계를 추진할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목적 응답이 탄생하였습니다.²

미국의 가톨릭 주교들인 우리는 가톨릭 교회 내에서 신앙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고 융합시키는데 있어서 교구와 본당 지도자,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지원하고자 이 사목적 응답을 제시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들은 미국 내에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신앙 안에서의 조화’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은 미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소수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에 대한 더 많은 주목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 미국 가톨릭 신자 인구: 인종, 민족, 출생지 그룹 추정치, 2013]; [측면 보조란 2: 가장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가 속해 있는 미국의 열다섯 개 (대)교구들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Asian Pacific Island Catholic: APIC) 신자 총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측면 보조란 3: 아시아인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인구의 미국 주교회의 지역별 추정치]. 미국 내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풍성하고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지역에 사는 다양한 민족 공동체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들이 전통적인 가톨릭 관습에 녹아들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²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는 애초에 구상했던 전국 사목 계획의 개발로부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런 계획은 목표와 목적, 행동, 그리고 측정항목의 식별과 관련되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지역 차원에서 개발되어야만 한다. 대신, 소위원회는 교구나 본당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들 자신만의 사목 계획으로 수립되거나 또는 접목될 수 있는 사목적 틀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엄밀히 말해서, 이 사목적 응답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을 사목적으로 보살피는 주교와 교구, 그리고 본당 사제에게 격려와 안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고 싶어 하며, 미국내의 가톨릭 교회로부터 더 광범위한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목적 응답: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라는 부르심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에서 교우들에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촉구합니다.³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우리도 그분께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희망을 갖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 못 생각해 왔습니다...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⁴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 특히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다양성에 의해서

³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Evangelii Gaudium* (Washington, DC: USCCB 미국주교회의, 2013), no. 3.

⁴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Evangelii Gaudium* (Washington, DC: USCCB 미국주교회의, 2013), no. 3.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공동체 생활에 따른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고려하시어 우리를 이끄십니다.”⁵ 따라서,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은 복음과의 만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은총은 문화를 전제로 하고 이 하느님의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 안에서 구체화됩니다.”⁶

이것은, 한 편으로는, 문화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힘에 의해서 변화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문화가 교회의 삶 속으로 융합되며 교회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합니다. “고유의 문화에 따라 하느님 은총을 경험한 다양한 민족들 안에서, 교회는 참다운 보편성을 표현합니다.”⁷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들을 받아들여 ‘패물로 단장한 신부’ (*sponsa ornate monilibus suis*) (이사 61, 10 참조)가 됩니다.”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의 문화로부터 교회에 봉헌된 이 패물 중의 하나는, 그들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조화의 원천이 됩니다. 조화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문화의 아주 공통된 주제이기에, 복음과의 만남에 있어서, 성령께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문화인 이 패물을 변화시켜 교회에 축복이 되게 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화의 개념을 통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의 다양한 문화들은 주님과 만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다양함 속의 일치’에 대한 그들의 문화적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세계관에 따르면, 조화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차이점들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는 수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풍요로움으로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조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라는 목표를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다른 이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공동체를 자기 자신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물론,

⁵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Evangelii Gaudium* (Washington, DC: USCCB 미국주교회의, 2013), no. 113.

⁶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Evangelii Gaudium* (Washington, DC: USCCB 미국주교회의, 2013), no. 115.

⁷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Evangelii Gaudium* (Washington, DC: USCCB 미국주교회의, 2013), no. 116.

⁸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Evangelii Gaudium* (Washington, DC: USCCB 미국주교회의, 2013), no. 116.

모든 문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복음에 의해서 정화될 필요는 있지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 안에서 조화의 중요성은 교회의 통공이라는 계시된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풍성한 문화적 아날로그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사목적 응답은 미국 안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을 세상에 알리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함께 엮어서 아름다운 용단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 응답은 해당 지역의 서로 다른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는 어려운 작업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들간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⁹ [측면 보조란 (Sidebar) 4: 미국 내에 있는, 인도에서 온 동방 가톨릭교회, 2017]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교우들에게, 각자의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세례성사의 소명을 수용하라고 권고합니다.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 년 간의 연구를 위탁하였는데, 13개 언어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조사와 회중들에게 직접 한 질문서, 작은 그룹 토의, 그리고 대면 인터뷰를 포함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들의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가 드러났습니다:

- I. 정체성
- II. 세대
- III. 리더십
- IV. 문화적인 만남과 대화

⁹ 시로 말라바르 (Syro-Malabar)나 시로 말란카라 (Syro-Malankara) 같은 동방 가톨릭교회 역시 포함이 되긴 했지만, 이 사목적 응답은 라틴 가톨릭교회의 시각으로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통, 관습, 법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정을 한다면, 미국 내 모든 가톨릭교회 자치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성명서의 주된 포커스는 아니지만, 동방 가톨릭교회에 대한 특정한 정보가 측면 보조란에 포함되어 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각각은 두 렌즈를 통해서 관찰될 것입니다: 표현되는 신앙과 연동되는 신앙. 첫째 렌즈인 표현되는 신앙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이야기를 더 큰 가톨릭 전통의 일부로 봄과 동시에 특정 공동체의 고유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렌즈인 연동되는 신앙은 특정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요구와 도전에 대한 사목적 응답을 위한 제안들을 제공합니다. 이 제안들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와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문화적, 세대적 다양함이라는 더욱 광범위한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목자들에게 제시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목적 제안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 전국 차원
- 교구 차원¹⁰
- 본당 차원¹¹

표현되는 신앙과 연동되는 신앙이라는 두 렌즈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이 기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또한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인정합니다.

¹⁰ 교구 차원과 본당 차원에서 발견된 제안들 중 다수는 가톨릭 학교와 대학교 내의 사목적 환경에 맞출 수 있다.

¹¹ 본당 차원은 가족적 환경과 소규모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제안들을 포함한다. 소규모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선교 사명 *Redemptoris Missio* (Washington, DC: USCCB, 1990)’에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사용한 용어를 채택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기초 교회 공동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I. 정체성

표현되는 신앙

토마 사도 시대부터 인도에 그리스도교가 존재했지만,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그리스도교를 중세 혹은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¹²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선교사들이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들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축제, 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규율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 혹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¹³ 식민지배와 선교의 역사는 이 나라들이 외부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과 어떻게 그들이 변화에 적응했는 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교를 이 지역의 많은 나라에 전했는데, 어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나라들은 새 종교를 받아 들였고, 어떤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역사에서 식민지주의는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식민 역사에 수반되는 태도는 쉽게 바뀔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지주의는 이 사목적 응답의 영역을 초월한 추가 토의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나 영토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소수 종교이며 가톨릭은 그리스도교 인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태평양 지역 인구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가톨릭 신자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5: 아시아 국가들의 가톨릭 신자 비율 추정치]

¹² 중국의 전교는 칼데안 (“페르시아인”) 교회에 의해서 중세 전에 이루어졌다.

¹³ 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 태국, 그리고 통가는 예외.

[측면 보조란 (Sidebar) 6: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가톨릭 신자 비율 추정치]

이 기준에 있어서 예외는 필리핀, 티모르-레스테 (Timor-Leste), 왈리스 (Wallis) 와 푸투나 (Futuna), 그리고 괌입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가톨릭이 최다수 종교 단체입니다. 필리핀과 티모르-레스테는 각각 93%와 95%의 높은 가톨릭 신자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나 태평양 지역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율들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더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는 필리핀계 미국인들이 모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75%를 차지합니다.¹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측면 보조란 (Sidebar) 7: 미국에 필리핀 사람들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 가톨릭 신자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배와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현존하는 다양성과의 만남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¹⁵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미국에서 출생했든 아니면 이민을 왔든 상관없이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그들의 문화적 성장과 세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사람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토의할 때, 종교와 문화가 어떻게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1 세대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명백하겠지만, 2 세대와 계속되는 세대들 역시 이런 정체성 형성의 일부분을 물려받아 왔습니다.

¹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의 인구분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2010 년도 응용 연구 센터 사도직 보고서 (Center for the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 report)의 ‘미국 가톨릭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in the Catholic Church in the United States)’ 을 참조하십시오.

¹⁵ 미국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는 광범위한 반구적 시각 (hemispheric perspective)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이슨 올리버 창 (Jason Oliver Chang)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아카폴코, 리마, 그리고 마닐라 간의 갈레온선 (galleon) 무역으로 인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보다 몇 세기를 앞선다. 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무역 때문에, 다른 민족 출신인 몇 십만의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의 식민지들과 아메리카의 토착 지역들에 이주하게 된다. 그가 쓴 “반구적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를 향하여 (Toward a Hemispheric Asian American History)” 이 실려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 옥스퍼드 핸드북 (Oxford Handbook of Asian American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0; 35)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들은 때때로 동아시아 혹은 남아시아의 종교를 믿거나, 어쩌면 토착적이거나 정령숭배 (animist) 전통으로부터 개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어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들은 사회가 그들을 종교적으로 참된 가톨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종류로 묶어 버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미국 사회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고, 숨어 있고, 거부되고, 소외된다는 느낌을 조장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오래된 가톨릭 역사를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출신 국가별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그룹을 이루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고백되고, 특정하게 표현되는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이런 특정한 표현들은 그들의 예배 관행들과, 전례 거행들에서 명백해집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거행하는 대림절 구일 전야 미사들 (Advent novena Masses of Simbang Gabi (“night Masses 밤 미사들”)부터 해서 아시아의 음력 설 (중국 공동체는 *Xin* (신新) or *Chun Jie* (춘절春節), 한국 공동체는 설날, 라오스 공동체는 *Pi Mai*, 그리고 베트남 공동체는 *Tet*)중에 거행되는 전례와 신심 행위들까지, 많은 공동체들이 문화적 요소들을 그들의 가톨릭 예배에 접목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들에게서 발견되는 밝은 색상들과 세밀한 디자인들은 성당 벽들과 회중석들에 둘러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기도 합니다. 이 색상들과 문화적 기본 모티브는 가톨릭 예배의 포용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공동체들이 접목하는 다른 관행들은 성인 호칭 기도 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성인들을 포함시키는 것 뿐 아니라 성모 마리아 성상이나 이미지를 각 지역 전통 의상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은 마리아를 그들의 특정 민족 정체성에 통합시킵니다. 예술 분야에서, 마리아는 아시아의 특징들과 태평양 지역의 특색들을 갖춥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는 사람들을 위해 전구해 주십시오 요청받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과 문화에 깊이 기반을 둔 사람들을 양육하는 돌보미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례

관습들과 신심 행위들은 다양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 가득한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의 깊은 만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정체성은 각자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됩니다. 모국어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통을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그들 존재의 심연을 나타냅니다. 종교가 그들 삶에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의 특성과 성격을 역설하는 정체성 표기입니다. 이는 독특한데, 특히 문화적 표현들이 영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로만 표현되어야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몇몇 예를 들자면:

- 칫 사 고 쉐이 재이, 모네 사 고 토 재이 (*Chit sa go shay zay, mone sa go toe zay*), 버어마 격언 “증오가 아니라 조화에 머무르시오.”
- 킨 카오 렌 보 (*Kin kao len bo*)? 라오스의 환대 표현인데 상대가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봅니다.
- 아이아 케 올라 카 와하 (*Aia ke ola I ka waha; aia ke make I ka waha*) 하와이 말인데 “빨은 말은 살리기도 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아시안과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의 독특한 사회적 표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외양은 이 독특함을 더해 주고, 이 독특함들은 때로는 인종차별로 인하여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싸우는 것은 태도의 변화와 편견의 극복 뿐 아니라, 미세하게 인종차별을 구현하고 조장하는 사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8: 인종차별의 정의] 인종차별의 경험은 어떤 한 민족 그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시안계 미국인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예는, 1882년의 중국인 배척 법 (*Chinese Exclusionary Act*)과 제 2차 세계 대전 중의 일본계 미국인들의 억류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입니다.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대다수 인구와 언어적 혹은 신체적으로 다른 현실이 그들의 소외된 지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주된 문화에 동화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인종적 추정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은 그들 서로간의 인종차별을 미국의 인종차별 담론에 추가 시킵니다 (예를 들어, 계급 차이, 사회 문화적 그룹들, 그리고 출신 민족에 기인함).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이 대면하는 인종적 벽을 정체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때로는 “나서지 않는,” “순종적인,”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즉 “모범적인 소수들” 로 그려지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존재감 없음” 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은 백인, 흑인, 인디언 원주민, 라티노를 포함하는 미국의 인종차별 담론들로부터 제외됨을 느낍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은 이러한 담론들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함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이 문제가 존재합니다. 비록 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어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부정적인 선입견때문에 그들이 본당이나 교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감춰져 있음” 이나 “존재감 없음” 이라는 인식을 영속화시킵니다.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들의 책임에 태만하지 않고, 요구되는 것을 순종적으로 따르고,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결정과정에 초대돼야 한다는 것을 더욱 큰 교회 공동체들에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주창하듯이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 3:28). 거기에 더해, 모두는 하느님 가족의 한 부분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에페 2:19).

정체성과 연동된 신앙

이 부문에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이미 신앙 행위들에 연동되어 있는 방법들과, 제시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토의할 것입니다. 이 행위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 공동체들 모두에 유사하게 존재하지만, 어떤 것들은 개별 그룹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예들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들을 연동시키고 지원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회 안에 받아들여짐

우리의 신앙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지역 본당들과 교구 전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독려합니다.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집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집에 돌아옴이라는 공유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향 (한국말); 코코로 노 후루사토 *kokoro no furusato* (일본말로 “내 마음의 고향”); 혹은 하이 하오 *hayi hao* (차모로 Chamorro 말로 “누구랑 인척 관계인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간에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공유되는 소유권도 또한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아래 나오는 세 가지 차원의 제안들은 더 많은 대화뿐 아니라, 전략적 계획들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시발점들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들은 측면 보조란들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차원

- *문화적 대표들 초청하기.* 다양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과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규모가 큰 전국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표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9: 문화적 대표들을 토론의 장으로 초청하기] 문화적 대표들을 토론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은 공개 발표나 미디어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더 성공적인 초대를 위해서는 전국이나 교구의 리더들이 기획의 모든 단계에서 주요한 아시아와 태평양 리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 차원

- *공간 공유하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이 예배, 교리 공부, 기금 조성, 그리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교회적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시설 이용, 자원 사용 등). 교구들은 이런 것들과 다른 활동들을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인종차별 문제 다루기.* 위에 기술한 대로, 인종차별은 오늘날 지속되고 있는 사회 현실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되는 기술은 교구와 본당 차원에 존재하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관한 미국 주교회의 사목 서한, ‘우리의 형제 자매 (Brothers and Sisters to Us, 1979)’ 와 미국 주교회의 산하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의 자료인 ‘사목자들의 문화간 능력 계발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 2012)’ 의 네 번째 부분을 적극 추천합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0: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종차별의 죄에 대응하기]

[측면 보조란 (Sidebar) 11: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측면 보조란 (Sidebar) 12: 본당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본당 차원

- **가정 환대 관습 확대하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에는, 가정 혹은 공동체 모임 전, 중간, 그리고 후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대 관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들과 사목 지도자들이 이런 형태의 환대를 본당과 교구 행사들에 연결하고 확대하는 접근법들을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3: 문화적 공유와 풍요]

재능들의 인식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 내에서 발생하고 표출되는 재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전국 기관들과 교구와 본당 기획 모임들의 토론의 장에 여러 대표들을 초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다음의 제안들은 재능들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 지를 다룸으로써 이를 더욱 진척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추가 연동을 위한 제안들

전국과 교구 차원

- **교구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에 관한 자료 센터 설치하기.** 미국 주교회의와 가톨릭 출판사들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을 위해 준비하거나, 그들로 부터 나오는 자료들을 이미 제공했거나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중 많은 것들은 미국 주교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4: 자료 예들) 이 출판물들에 더해서, 교구들은 교구 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에 관한 기존 자료들의 목록을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자료 목록을 정기적으로 지역 본당들에 보낼 수 있습니다.

- *교구내 구성원들이 가진 재능의 풍부함을 인식하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에서 나오는 교구의 구성원들이 가진 재능들은 원주민 언어와 관습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측면 보조란 (Sidebar) 15: 전례를 위한 문화 예술 형태]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전례적으로 적합한 노래들을 부르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공유하는 것; 공식 문서에 정해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례 환경이나 사목 센터를 도착 직물이나 천으로 장식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나 지방을 도와 줄 국내와 국제 가톨릭 기관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들을 주관하는 것, 등입니다.¹⁶ 이 목록이 단지 표본 추출 (sampling)을 나타내는 반면, 발견될 다른 여러 재능들은 본당의 사목적 프로파일과 지속적인 회개로의 초대와 선교 사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6: 성 요셉 통가 가톨릭 여성 그룹 (St. Joseph Tongan Catholic Women's Group)]

본당 차원

-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으로 본당 교우들을 초청하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정들과 소규모 교회 공동체들이 그들의 재능들을 가져와서 지역 본당과 교구와 나누도록 격려합시다. 성공적인 초청 모델은 주임신부들과 본당의 다른 리더들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일어납니다. 이런 초청은 공동체 지향적 접근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¹⁶ 국제 기관들을 도와 줄 기금 모금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국내 자선 기관들에 부과되는 세법 요구 사항들과 다른 연방법 관련 사항들을 인지해야만 한다. 미국 주교회의의 c. 1262 CIC 에 대한 보충 법안들을 참조하시오: <http://www.usccb.org/beliefs-and-teachings/what-we-believe/canon-law/complementary-norms-1262-fundraising-appeals.cfm>.

출신 가정들 그리고(또는) 공동체들이 본당이나 교구 행사들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공유되고 기념될 수 있는지를 그들 스스로 선택하라고 권고 하십시오.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 정체성의 다원성과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에서 지적한 대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들은 민족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면서, 하나의 신앙 안에서 일치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정들은 자기들이 익숙치 않은 다른 문화의 기도회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문화적인 미묘한 차이를 탐색하고 체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가정 모임 혹은 작은 기도 모임이 다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족들이나 그룹들을 그들의 9일 기도회 초대할 수 있고, 조상들을 공경하는 (아래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족들이 이 전통과 익숙치 않은 다른 문화 그룹들을 이런 신심 행위들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통공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오늘날 모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들은 와싱턴 디씨에 위치한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국립 성지 대성당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에 매년 가는 성모 성지 순례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 가톨릭 네트워크와, 관련된 몇몇 교구들이 주최하는 것; 와싱턴 디씨의 국립 성지에 있는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가 준비하는 평화와 좋은 여행의 성모님 (Our Lady of Peace and Good Voyage: 안티폴로의 성모님으로도 알려짐; 필리핀어로 Birhen ng Antipolo) 성지 순례; 마찬가지로 와싱턴 디씨의 국립 성지에 있는 인도 가톨릭 공동체가 후원하는 Vailankanni (인도의 한 도시) 좋은 건강의 성모님 (Our Lady of Good Health) [측면 보조란 (Sidebar) 17: 좋은 건강의 성모님, 바일란카니 Our Lady of Good Health, Vailankanni (인도의 한 도시)]; 미주리 주 카르싸르쥐(Carthage, Missouri)에서 197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최대 70,000 명의 순례자들을 모으는 베트남 성모님의 날 행사 (Vietnamese Marian Days); 그리고 괌에서 성모님의 가장 공경받는 호칭인 카마린의 성모님 (Our Lady of Camarin)의 축일 기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모 신심 행위들은 성모님께 대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께 대해 갖는 지속적인 유대감이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더 큰 교회 공동체에 이익이 되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성모 신심에 추가해서, 점점 더 늘어나는 성인들, 순교자들, 복자들의 목록은 계속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 생활을 표시하는데, 어거스틴 짜오 룡 성인과 동료 순교자들 (St. Augustine Zhao Rong and Companions, 중국), 미키 바오로 성인과 동료 순교자들 (St. Paul Miki and Companions, 일본), 안드레아 둥락 성인과 동료 순교자들 (St. Andrew Dung-Lac and Companions, 베트남),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한국), 로렌조 루이즈

성인과 페드로 칼롱소드 성인(St. Lorenzo Ruiz and St. Pedro Calungsod, 필리핀), 베드로 샤넬 성인 (St. Peter Chanel, 바누아투 Vanuatu), 복자 니콜라스 벙커르드 킴밤룽 (Blessed Nicholas Bunkerd Kitbamrung, 태국), 복자 이시도로 응게이 코 랄 (Blessed Isidore Ngei Ko Lat, 버어마), 복자 베드로 토 롤 (Blessed Peter To Rot, 과푸아 뉴 기니아), 그리고 2015년 6월 5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시복된 라오스의 열 일곱 분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리스도교 박해시기에 죽은 유럽에서 온 무명의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이 그들의 고국에서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 표시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모범적인 인물들이 특정한 공동체들에서 기억된다 하더라도, 다른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들은 대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교회는 성인으로 선포된 분들이 보편 교회 전체를 통해서 공적 신심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자들에 대한 공적 신심이 일반적으로 규정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들로부터 온 이민자 신앙 공동체들이 종종 복자들에 대한 신심을 미국이라는 새 땅에 가져옴을 인정합니다.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전국 차원

- **성모 신심 증진하기.** 성모 신심은 모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 가운데 광범위하게 경축되고 있기에, 이런 신심을 장려하고 문화간 참여를 포함하는 전국적인 행사들을 주최하고 기획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성직자와 사목 지도자들이 훌륭히 사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신앙과 종교적인 관행들, 관습들, 신심들, 그리고 동방 종교들에 관하여 그들을 교육시키십시오.

교구 차원

- *전례 거행과 대중 신심 행위들을 상호 연관 짓기.* 공식적인 전례와 성사 거행은 교회의 기도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만, 본당 지도자들은 모든 형태의 대중 신심 행위들이 이런 전례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8: 보편 지향 기도] 우리는 교구와 본당이 이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표된 교구의 정책들과 지령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경신성사성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에서 공표한 ‘토착화와 로마 전례에 관한 설명서 (the Instruction on Inculturation and the Roman Liturgy, 1994)’와 ‘대중 신심행위와 전례에 관한 규칙서: 원칙과 가이드라인 (the Directory on Popular Piety and the Liturgy: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1)의 숙독을 권장합니다.
- *교리교육 자료 배분하기.* 이용 가능한 신심 자료들 가운데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교리 수업 때나 본당 행사 중에 이러한 신심 행위들을 소개하고, 접목하고, 인용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본당 차원

- *신앙의 다양한 표현에 열려있기.* 많은 아시안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정들과 소규모 교회 공동체들은 이미 다양한 신심 행위들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풍부한 체험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과 형식들에 열려 있으면서, 이런 행위들을 계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례 시기와 일치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술 형태와 음악적 표현들은 기존의 기도 형태들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II. 세대

표현되는 신앙

가정은 모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구 세대와 현 세대의 인정이라는 문화적 가치는 교회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오 복음서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다채로운 인물들의 복잡한 목록을 통해 지속되는 예수님 이전의 많은 세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가정 구조는 세대 관계에 대한 성찰과 토론의 기초입니다.

효경

아주 종종, 1 세대 (즉, 청소년이나 성인일 때 미국에 도착하는 사람들)는 가정의 운영을 위한 핵심 문화적 요인으로 효경을 꼽습니다. 효경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존경과 합당한 순종을 드리고, 돌아 가시면 적합한 장례를 치루고 기억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경이라는 아시아 문화 전통은, 제대로 된 관계들을 통해서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한다는 유교적 이상을 통해서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곳에서 정형화되었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충실함이 깊이 느껴지는 다른 전통을 가진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에서도 수용되는 가치입니다. 이 충실함은 모든 어른들과 조상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책임으로 까지 확대됩니다. 이런 기대감이 2 세대와 그 후 세대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 세대 자녀들은 종종, 자신들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신앙을 전달해 주느라 많은 희생을 치른 부모들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낍니다.

가정

전통적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가정은 여러 세대들이 한 지붕 아래 살아왔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관습을 유지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별도의 가구들로 갈라지게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만, 서로 상대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정착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 아래서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일 년 내내, 때로는 매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꽤나 흔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은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 떨어져 살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초 국가적인 가정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주교회의 문헌 ‘신앙 안에서의 조화’는 열심한 신앙 생활로 장려되고 유지되는 가정의 온전함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기술합니다 (페이지 22-24 참조). 많은 가정들이 높은 이혼률, 저조한 교회 참석율,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라는 미국 사회의 현대적 경향에 의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이런 상황의 영향을 받아 해체되기도 하지만, 다른 가정들은 손상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가정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채로 지냅니다.

1 세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은 다른 이들이 그들을 정의하기를 원하는 일반적인 다문화, 범 아시아, 또는 범 태평양 지역 출신이라는 정체성 보다는 특정한 민족이나 국민으로 인식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 보다는 버마인, 피지인, 통가인, 또는 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이유와 이민 형식 (경제적 이민자 혹은 난민)에 따라 그들은 서로 다른 경험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 세대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그들의 고향에 대한 강한 감정적 유대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유대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선물 소포 (care packages)와 실질적인 송금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의무와 관행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국에

있을 때 했던 대로 신앙 생활을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교회 참석과 가정 예배 관행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1.5 세대는 다섯 살에서 열두 살 사이에 미국에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어떤 이들은 범 아시아 혹은 범 태평양 지역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 출생한 2 세대는 더 쉽게 광범위한 “미국인” 범주에 그들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의 정체성을 포함시키거나 (즉, 중국계 미국인 Chinese American), 단순히 그들 자신을 “미국인” 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속한 특정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화와 광범위한 미국의 주류 문화. 그들이 어쩌면 부모님의 문화와 가치에 충실하기를 소망하는 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의 모국이 미국내에서 복제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설령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특정 의사소통 기호를 파악하거나, 문화적 관행들의 진가를 인정하거나, 효경과 같은 가정적인 관습을 유지하는 등 그들의 모국어나 관습들을 아주 잘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후 세대는 부모님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전통적 관행이나 민간 전승을 탈피하고, 주변의 문화적 관행에 더욱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그들은 미국의 주류 문화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이 이민자일지라도, 하와이나 괌이나 미국령 태평양 제도에서 오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이고 이민자나 난민이나 외국인이나 손님의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 맞지는 않습니다. 그들 또한 선입견이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고, 세대간의 문화적 갈등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에 대한 토의를 할 때, 종종 그들이 미국에 막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으나, 많은 중국계, 필리핀계, 인도계,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여러 세대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그룹들은 많은 유럽계 그룹들보다 더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미국에 해당하는 곳에 처음 합법적으로 필리핀인들이 도착한 것은 1587년 10월 18일에 캘리포니아주의 모로 베이 (Morro Bay)였고,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정착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693년 루이지애나주의 뉴 올리언즈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1965년에 공포된 이민과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 이민 금지를 해제하고 이민 할당제를 제거함으로써 전반적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인구의 증가를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1965년 후에 아시아 이민자가 폭증한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런 미국 국민들을 미국에 갖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1세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참석은 문화적 긍지와 정체성의 원천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1세대 이민자들은 2세대에서 교회 참석이 감소하는 경향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민 세대중의 많은 이들은 청소년들이 신앙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두려워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의 2세대와 잇따르는 세대는 미국에서 자라는데, 거기서 그들은 교회 참석 체험에 관하여 일련의 차이점들과 대면합니다. 젊은 세대 중 많은 이들은 교회를 친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미국 사회 내에서 더욱 쉽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1세대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전례 거행이나 다른 교회 행사들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좀 더 느슨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 중 어떤 가정들은 타종교나 타문화를 가진 자와의 결혼에서 발생하는 도전들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2세대와 잇따르는 세대는 자신의 종교나 민족 밖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덜 불편함을 느끼는데, 1세대에게는 그런 결합이 주요한 염려 사항입니다. 어떤 1세대 어른들은 같은 종교나 민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은 종교나 문화나 민족적 경계선을 초월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큰 2세대의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교회는 타종교인과의 결혼은 우려하는 반면, 다른 민족 출신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성체적 청소년 운동 (Vietnamese Eucharistic Youth Movement)이나 필리핀 공동체의 강한 전통인 그리스도를 위한 청소년 (Youth for

Christ)에 참여하는 이들같이, 어떤 2세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참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두 그룹은 신앙을 복돋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조직함으로써 동료 공동체들을 창조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형성하게끔 도와줍니다.

세대를 넘어 연동되는 신앙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의 젊은 세대가 신앙의 바다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대화와 지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로부터의 이해라는 조합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에게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아래에 나오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제안들은 추가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들은 측면 보조란들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과 교구 차원

- *세대간의 대화 증진시키기.*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소명에 영감을 받아, 교구들과 전국 기관들은 세대간의 협력형 대화 모델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혹은 전국 컨퍼런스 중에 소통, 가족의 역할, 의무와 기대에 있어서 양육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각 세대가 어떤 접근방법을 취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는 세미나나 좌담회를 열 수 있습니다.

본당 차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이 종종 본당을 그들의 많은 사목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반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구 부서들과 본당들은 아래의 제안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차원에서 세대 간 대화 증진시키기.* 먼저의 예와 유사한데, 세대 간에 듣기 포럼을 본당 차원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거론될 주제들은 본당 공동체 내의 관심사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화 그룹들 간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대한 예들은 ‘공유되는 본당을 위한 최선의 실행: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Best Practices for Shared Parishes: So That They May All Be One, Washington, DC: USCCB, 2014)’ 을 참조하십시오.
- *혼인 준비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넓히기.* 다민족, 다교단, 다종교 간의 결혼이 미국에서 증가함에 따라, 모국어로 쓰여진 다문화, 다교단, 다종교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교리 행사들과 포럼들은 혼전 동거나 인종간/종교간 결혼 같은, 가정 안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민한 사안들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전례 거행하기.* 세계 청소년 대회 모임을 본받아서, 젊은 세대의 욕구를 감안하는 전례를 거행하십시오. 우리는 본당이 두 가지 전례 자료를 잘 알게 되기를 추천하는데, 하나는 가톨릭 청소년 사목을 위한 국립 연합 (National Federation for Catholic Youth Ministry)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구 전례 위원회 연합 (Federation of Diocesan Liturgical Commissions)의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 사춘기 청소년들과의 예배에 있어서의 도전 (From Age to Age: The Challenge of Worship with Adolescents, 1997)과 끊없는 세월 동안: 사춘기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전례 사목 (For Ages Unending: The Ministry of Liturgy with Adolescents, 2014).
- *가톨릭 청년 공동체 지원하기.*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통상적인 직업을 갖기 전에 계획적인 가톨릭 공동체 (Intentional Catholic

Community)에서 살기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 메리놀 평신도 선교사 (Maryknoll Lay Missioners), 예수회 자원 봉사 단체 (Jesuit Volunteer Corps) 등에서 일 년간 자원 봉사하기). 이런 기회들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는 가톨릭 자원봉사 네트워크 (Catholic Volunteer Network)에서 제공하는 응답 주소록 (Response Directory)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다교단, 다종교, 그리고 다문화 모임 계획하기.* 2세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들과 비슷한 삶의 형태 (예, 미혼 혹은 기혼, 아이가 있는 지 혹은 없는 지)를 가진 동료집단과 신앙 관행, 전통, 그리고 영성의 다양함에 대해서 나누고 성찰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종교적, 문화적, 또는 민족적 전통이 공유되고, 존중되고, 기념되는 다교단, 다종교, 그리고/또는 다민족 행사들 (예, 음식 나누기 모임, 주요한 경축일 기념, 예술 전람회 등)을 후원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권고하십시오.

III. 리더십

표현되는 신앙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은 리더십을 중시하고, 교회를 포함해서 권위를 가진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존경을 보입니다. 이 가치와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화들이 갖는 다른 긍정적인 공통 특성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성장과 개발을 위한 잠재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민족들의 역량과 자산과 관습을 좋은 것이라면 촉진하고 받아들이며,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정화하고 강화하며 승화시킵니다” (인류의 빛 *Lumen Gentium* [LG], 13 항).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권위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친히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사도들을 파견하셨으며, 그들의 후계자들 곧 주교들이 당신 교회 안에서 세상 끝 날까지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인류의 빛 LG, 18 항)고 표명합니다. 주교들은 신부들과 부제들의 협조를 받아, “공동체의 봉사 직무를 받아들여...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빛 LG, 20 항). 그들은 “신자들이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세례로 받은 사제직을 수행하게끔” (가톨릭 교회교리서, 1564 항) 신자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전근대적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화에 있어서 권력은 우주 질서의 지상 표현으로 간주되는 위계구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 아직도 아시아와 태평양 문화권의 어떤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리더십은 대단한 존경을 받기에, 지도자들은 중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듯이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어른과, 지도자와, 스승을 존경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기대되기에,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는 가정과 공동체와 더 광범위한 사회 내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은 공유되는 신앙의 일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겸손함과 감사함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와 섬김이라는 관계 역학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되는 효경 실천에 새겨져 있는 의무감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전적인 노고와 그들의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헌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통해서 존경을 얻습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19: 미국의 몽족 (Hmong) 가톨릭 공동체 내에서의 지도자 양성] 그래서 그들은 문화적 기대치를 수행하고, 그들이 지도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공동체의 충성을 얻습니다.

공동체 리더십은,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부를 이루면서 각자의 특별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바오로 성인의 서면에서 발견됩니다 (로마 12:4-6). 교우들은 서로에게 대해서 형제 자매로서 그들의 책임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13:17). 이 원칙은 단순한 맹종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삶에 깃든 강력한 책임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공동체의 공유된 책임감을 요청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불림 받았습니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지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은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공감하는 진정한 교회 리더십을 상기시키는 조언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바오로의 서간 2:1-11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필리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고합니다. 이 권고의 중심은 바오로가 말하듯이 겸손한 섬김의 소명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필리 2:3-4).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영성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들의 능력때문에 존경받습니다. 사목과 교회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일생의 헌신,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의 헌신은 하느님께서 그들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심과 하느님께서 질서있게 만드신 우주의 반영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에 대한 2015년의 연구 결과 중의 하나는 사목자들의 훌륭한 행정 능력이 이들 공동체 중 많은 곳에서 중요시되는 리더십의 또 다른 면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의 본당신부와 같은 지도자는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룰 줄 알고, 본당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정 능력은 전국 조직들과 협회들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사용됩니다. 이런 조직들과 협회들은 그들을 지원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서로 잘 지내도록 노력하는데 이는 결국 그들이 섬기라고 정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제직과 수도생활에 상당히 많은 성소자들을 배출하는 것은 미국 교회에 대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2016 년도 사제 서품자들에게 대한 사도직 학습의 응용 연구 센터 (Center for the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 study)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서품자들 중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은 15 퍼센트입니다. 2015 년도 수도 서원자들 중 설문에 응답한 수도자들 가운데 여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16 퍼센트) 자신을 아시안이라고 했습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20: 가족의 일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리더십 역할을 맡는 기회가 평신도에게 주어지면 종종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는 소규모 신앙 공동체나 가정 기도 모임의 기도 리더 (예, 묵주기도나 다른 신심 행위들)로 봉사하거나, 전례 축일들의 거행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평신도들이 그들의 본당이나 교구나 전국 차원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학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교회에 중요한 봉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본당 교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성직자나 수도자를 미국에 소개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을 사목하기 위해서 데려 오면 [측면 보조란 (Sidebar) 21: 사목자를 받아 들이는 가이드 라인],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문화가 역동적이고 결국은 변화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되는 토착 문화가 변함없다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리더십과 연동되는 신앙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는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들이 설령 도전적일 지라도 다뤄져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목적 응답을 작성하기 전에 행한 설문조사와 핵심 그룹 자문을 통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민족적 유산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거나, 잘 양성된 다른 지도자들이 선천적으로 가지지 못한 문화적인 예민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몰이해나 둔감함은 때때로 공동체와 임명된 지도자간에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신자들은 다른 민족 배경을 가진 본당신부가 지역 주교에 의해서 임명되면 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아래에 나오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제안들은 추가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들을 창조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들은 측면 보조관들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차원

-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가까운 연대 맺기.* 우리는 미국 주교회의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교회의 간에 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들을 인정하는데, 이는 미국 주교들의 연대 차원 방문과 가톨릭 구호 봉사단 (Catholic Relief Services)과 같은 미국 가톨릭 구호 단체나 개발 기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미국

주교회의와 아시안 주교회의 연합과 태평양 주교회의 (*Conferentia Episcopalis Pacifici*)와의 더욱 공식적이고 더 가까운 유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리더십을 주교직 지위에 진출시키기.* 현재, 미국에는 작은 수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주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은 이런 주교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더 광범위한 미국 교회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교직에 선출될 자격을 갖춘 사제들의 이름을 제안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 주교들은 계속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욕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법 377 §2 참조).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사목자들의 리더십 훈련을 지원하기.* 성인 교육이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기금과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전국 혹은 지역 컨퍼런스, 지역 워크샵, 그리고 세미나에 대한 장학금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비 사목 취업 비자 취득 돕기.* 여성 수도자 협회 지도층, 여성 수도 장상 협의회, 그리고 가톨릭 합법 이민 네트워크와 협력하며, 지역 공동체들과 교구들의 지원을 받아서 비 사목자들이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예를 들면, 특별 이민 비 사목자 종교 취업자 비자 [Special Immigrant Non-Minister Religious Worker Visas]).
- *공동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성소자 찾기.* 성소 계발의 흔한 방법은 부제직, 사제직, 그리고/또한 수도 생활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소 담당자는 성소 계발에 대해서 더욱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가족들이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신앙 공동체들이 특정한 모임을 할 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구 차원

- *외국 사목자들을 환영하기.* 교구나 지역 본당에 발령받는 외국 사목자들을 안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마련하는데, 이는 전국적이거나 지역적인 프로그램과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지침서 *Guidelines for Receiving Pastoral Ministers in the United States, Third Edition*)를 포함합니다.
- *더욱 많은 성소 관련 자료 개발하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모국어들로 번역된 성소 관련 및 미디어 자료들을 제공해서 그 공동체들에서 영어가 불편한 가톨릭 신자들이 성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본당 차원

- *성소 장려하기.* 성소 장려는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특정 문화를 가진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사목적 필요를 위해서 봉사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성소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노력들을 기울여만 합니다. 가정들은 성직자와 수도회의 회원들을 그들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거나 다른 특별한 가족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 공동체들은 성소 후원회원들과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성소 식별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춘 행사들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IV.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문화적인 만남과 대화 표현되는 신앙

사도적 권고 ‘미 대륙의 교회 (*Ecclesia in America*)’ 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성인은 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당시 남자들과 여자들과 가졌던 많은

만남들에 관심을 끌었습니다.¹⁷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성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진 변화시키는 힘은 “회개와 친교와 연대의 참된 과정이” 시작되게 한다고 말합니다.¹⁸ 요한 복음 4 장에서,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우물가의 여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봅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결과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 여정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만남을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포하도록 이끕니다. 만남으로부터 회개로 그리고 선포로의 이 움직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유산을 가진 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더 훌륭한 복음 전파자가 되고, 하느님 다스리심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다리면서 충실하고 꾸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의 모범적인 본보기를 한국의 양반 (학자)들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중국에서 접한 후에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수 년 동안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 공동체들을 세웠습니다.¹⁹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듯이, 우리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즉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²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님 다스림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회 체계들은 비판하라고 특별히 모든 이들에게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은 뉘우침과 회개와 사명이라는 은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는 은총, 그분의 자비,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우리의 문화적 구체성 안에서 우리를 터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¹⁷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 세, *Ecclesia in America* (Washington, DC: USCCB, 1999), no. 8.

¹⁸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 세, *Ecclesia in America* (Washington, DC: USCCB, 1999), no. 8.

¹⁹ 2001 년도의 성명서 ‘신앙 안에서의 조화 (*Harmony in Faith*)’ 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의 가톨릭 신앙은... 중국을 방문하고 베이징에서 발견된 그리스도교 서적들을 읽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한국의 유교 학자들의 주도로 1784 년에 시작되었다. 한국의 평신도들은 1836 년 첫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다. 일본에서는 16 세기에서 19 세기 까지 선교사들의 입국이 금지된 동안 평신도 가톨릭 신자들이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켰다.”

²⁰ 프란치스코 교황,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에 교회의 운동들에 대하여 한 연설문, 2013 년 5 월 18 일 (Address to the Ecclesial Movements on the Vigil of Pentecost),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13/may/documents/papa-francesco_20130518_veglia-pentecoste.htm/.

권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만큼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자’ 이며 ‘선교사’ 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선교하는 제자’ 라고 말합니다.”²¹

만남과 대화를 통해 연동되는 신앙

그 이상의 연동을 위한 제안들

아래에 나오는 제안들은 추가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들을 창조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들은 측면 보조란들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차원

- 전국적인 행사, 컨퍼런스, 그리고 활동은 문화 그룹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로 묶는 가톨릭 정체성에 이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토론의 장에서 정당한 자리를 찾는 지도자들과 문화적 공동체들을 위한 문화간 기능과 사목적 기술의 지속적인 양성을 요구합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성을 얻는다는 것은 그룹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교회를 위한 비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정한 문화적 관행과 어느 정도 타협을 수용하는 개방성을 요합니다. 이 문서의 첨부 III 은 이용 가능한 관련 자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구 차원

²¹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no. 120.

- 교구 내에서 문화간 대화를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며, 의도성, 참을성,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지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주교회의의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위원회의 자료인, 사목자들을 위한 문화 간의 능력 세우기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는 어떻게 교회적 통합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성단위(module)를 포함합니다: (1) 교회적 통합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사목 비전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2) 모든 문화 내에서 복음의 토착화 장려하기; (3)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기; (4) 사목적 그룹, 프로그램,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5) 다른 문화와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도록 역량 강화하기. [측면 보조란 (Sidebar) 22: “체면치레 (Saving Face)”]

본당 차원

- 교구 내의 본당, 학교, 그리고 다른 가톨릭 기관들은 문화 간의 능력 훈련 (Intercultural competence training)을 증진시킴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전통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로 인해 복음 메시지 선포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독려합니다.

결론

‘조화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성경과 가톨릭 성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더 광범위한 가톨릭 교회에 기여하게 만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의, 장고한 역사에 근거를 둔 신앙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무수한 사목 활동과 전례 및

신심 행위들을 통해서 연동되는 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측면 보조란 (Sidebar) 23: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의 활동과 행사의 예들] 하지만,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의 교회와 사회에서 그들의 자리를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상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복잡함을 보여주는데, 특히 정체성, 다양한 세대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상당한 도전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 응답의 목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에 기여하는 지체로서 그들이 가져오는 영적, 문화적 배경의 풍요로움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교회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서가 미국의 가톨릭 교구와 본당, 그리고 소규모 신앙 공동체들에게 유용하기를, 그래서 이들이 미국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행동과 사목적 접촉시도를 위한 계획을 개발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응답이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사목적 통찰이 부각되듯이 성숙하게 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계속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형제 자매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양성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라고 역설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가 사랑과 자비의 복음 메시지를 영원히 선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화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한 기도

모든 조화와 우리 신앙의 원천이신 하느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사랑 가득하신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소서.

당신의 아드님인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

성경과 빵 쪼갬을 통하여

오늘 당신의 교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문화적 유산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와 우리의 만남

그리고 성인들의 통공과 우리의 만남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하시어
우리가 조상들과 원로들로부터 전해 받은 가톨릭 신앙을
세대를 이어서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소서.

가정과 본당에서의 우리 서로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당신의 부르심에 더욱 기꺼이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겸손한 섬김의 모범으로 바라 보게 하소서.

오늘과 늘 저희의 마음을 생기있게 만드시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당신 말씀의 더욱 훌륭한 종이 되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당신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과 조화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며
한 천주로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Prayer for Encountering Christ in Harmony

God of all harmony and source of our faith,
loving Father who chose us to be your own
and formed us together as one family in Christ,
send forth your Spirit among us.

May our encounters with Christ, your Son,
through the Scriptures and the breaking of the bread
remind us of our identity in Christ
amid the multitude of cultural heritages
present in your Church today.

May our encounters with the Blessed Virgin Mary
and with the communion of saints,
strengthen us so that we may sustain
and pass down the Catholic faith of our ancestors and elder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May our encounters with one another
in our families and parishes,
nurture more leaders among us,
that they may answer your call more readily,
and look to Christ, our Savior,
as the example of humble service.

Enliven our hearts this day and always,
so that, going forth into the world
we may become better servants of your Word
and bearers of your love for all to see.

We ask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ho strengthens us in faith,
and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binds us together in love and harmony,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부록 1

다음은 Tricia C. Bruce, PhD; Jerry Z. Park PhD; 그리고 Stephen M. Cherry, PhD 의 연구
“미국 내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 (Asian and Pacific Island

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의 주요한 발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미국 주교회의의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사무국을 위해 2015년에 준비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demographics/upload/API-Catholic-in-the-US-Report-October-2015.pdf>

미국 내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

2015년 10월

다음의 각각의 공동체들과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인정한 인종 그룹들이 일 년간의 연구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로 이 사목적 응답의 목적을 위한 인구통계 자료의 근간이 형성되었다: 벵골인, 버마인, 캄보디아인, 차모로인, 중국인, 피지인, 필리핀인, 하와이안, 몽족,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일본인, 크무족, 크나나야 시리아인 (Knanaya), 한국인, 라오스인, 마셜 제도인 (Marshallese), 멜라네시아인, 마이크로네시아인, 만터냐드(Montagnard, 베트남의 산지인), 하와이 원주민, 파키스탄인, 폴리네시아인, 사모아인, 스리랑카인, 시로-말라바르인, 시로-말란카라인, 태국인, 통가인, 그리고 베트남인. 이 광범위한 나열이 각각의 특정한 인종 그룹의 전체 혹은 다수가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상이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인종들을 망라하는 참여자들을 폭 넓게 대변(對辯)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주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연구에 응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는 미국 교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존재를 더욱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진정한 소망을 나타낸다.

요약

미국 내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자 다섯 명 중 하나는 가톨릭 신자이다. 합하면 거의 삼백만 명에 달한다. 특히 미국의 서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미국 전체 교구들에 영향을 끼친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광범위한 인종 배경과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서 베트남, 중국, 한국 의 순서다. 거의 열 명중 여덟은 1 세대 이민자로서, 미국 밖에서 태어났다. 유사한 비율로 집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사용한다. 미국에 온 필리핀 이민자들을 제외하고, 아시안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출신국의 가톨릭 비율과 불균형하게 가톨릭 신자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7 퍼센트 미만이 가톨릭 신자인데, 30 퍼센트 이상의 베트남 이민자들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 2 세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 (미국에서 이민자 가정에 태어난 이들과 미국에서 자란 이민자들)들은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의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4-2015 전국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 연구 (National Study of Asian and Pacific island Catholic)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민족과 종교를 그들이 누구인가를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긴장의 요인이 되는데, 특히 그들 가정이나 공동체의 비 가톨릭 동포와 관계할 때 그렇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바티칸의 권위, 사회 정의, 그리고 독신 남성 사제와 같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지역 본당에서 높은 차원의 관여를 한다. 대다수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매주 미사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의 89 퍼센트가 적어도 매주 미사에 참여한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민족이 본당의 80 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본당에 소속되어 있다. 대부분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본당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들이 본당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절대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소속되거나 등록된 본당과는 별도로 다른 본당들에 가는데, 이는 민족적 혹은 국가적 명절들과 관습들을,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신심 행위들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리더십은 잠재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말한다. 많은 이들이 단지 다양한 사제들만이 아니라 숙련된 공동체 운영자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들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관행에 민감한 지도자들을 찾는다. 그들 중 4분의 1은 그들의 지역 사제가 적어도 가끔은 그들의 민족 그룹에 대해서 둔감했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은 본당과 교구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느낀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은 세대 간의 문화 전달에 있어서 더 큰 급박함을 느끼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또는) 가톨릭 신앙을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들은 미국에서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기는 하는데, 당면한 혹은 장기적인 필요들을 해결할 자원들의 강화와 공유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부록 2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본당들에서 회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최종 보고서

Mark M. Gray, PhD, and Jonathan L. Wiggins, PhD, 미국 주교 회의의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사무국 (2015),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demographics/index.cfm>.

부록 3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사목을 위한 자료

미국 주교회의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자료들을 포함한다: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resources/index.cfm>.

추가로, 연대순으로 나열된 아래의 자료들은 현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사목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목 지도자들의 자료 도서 목록에 있어야만 한다.

-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인종차별에 대한 사목 서한.

Brothers and Sisters to Us: Pastoral Letter on Racism. Washington, DC: US Catholic Bishops, Committee on African American Catholic, 1979.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frican-american/brothers-and-sisters-to-us.cfm> or <https://store.usccb.org/brothers-and-sisters-to-us-p/653-0.htm>

- 토착화와 로마 전례에 대한 지침.

The Instruction on Inculturation and the Roman Liturgy. Vatican City: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1994.

- 문화에 대한 사목적 접근을 향하여.

Towards a Pastoral Approach to Culture. Vatican City: Pontifical Council for Culture, 1999.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dds/documents/rc_con_ccdds_doc_20020513_vers-direttoria_en.html

- 대중 신앙심과 전례에 관한 목록: 원칙과 지침

Directory on Popular Piety and the Liturgy: Principles and Guidelines. Vatican City: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2001.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dds/documents/rc_can_ccdds_doc_20020513_vers-direttorio_en.html

- 대중 신심 행위들: 기초적 질문과 답변.

Popular Devotional Practices: Basic Questions and Answers. Washington, DC: USCCB, Committee on Divine Worship, 2003. <http://www.usccb.org/prayer-and-worship/prayers-and-devotions/prayers/popular-devotional-practices-basic-questions-and-answers.cfm>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현안: 신앙안에서의 조화.

Asian and Pacific Presence: Harmony in Faith. Washington, DC: USCCB, Committee on Migration, 2001.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resources/uphold/AP-Pastoral-Statement-English.pdf> or <http://store.usccb.org/asian-and-pacific-presence-p/5-449.htm>

- 사목자를 위한 문화 간 능력 개발.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 Washington, DC: USCCB, Committee on Cultural Diversity in the Church, 2012.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intercultural-competencies/> or <http://store.usccb.org/Building-Intercultural-Competence-for-Ministers-p/7-887.htm>

-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전례: 지침

Liturgy in a Culturally Diverse Community: A Guide. Washington, DC: Federation of Diocesan Commissions, 2012. <http://www.ocp.org/en-us/products/30113818> (Table of Contents: <http://fdlc.org/sites/default/files/files/Liturgy-Culturally-Diverse-Community-Sample.pdf>)

- 가톨릭 학교 내에서 문화 간 대화 육성, 사랑의 개화를 위한 조화의 삶
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 Vatican City: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catheduc/documents/rc_con_ccatheduc_doc_20131028_dialogue-interculturale_en.html or <http://store.usccb.org/Educating-to-Intercultural-Dialogue-in-Catholic-Sc-p/7-477.htm>

- 공유되는 본당을 위한 최선의 관행: 그렇게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도록.

Best Practices for Shared Parishes: So That They All May Be One. Washington, DC: USCCB, Committee on Cultural Diversity in the Church, 2014. Press release: <http://www.usccb.org/news/2014/14-051.cfm> and full document: <http://store.usccb.org/best-practices-for-shared-parishes-p/7-389.htm>

- 미국에 사목자들을 받아들이는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Receiving Pastoral Minister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CCB, Committee on Clergy, Consecrated Life and Vocations, 2014. <http://ccc.usccb.org/flipbooks/cclv-guidelines/cclv-guidelines/assets/basic-html/page-1.html> or <http://store.usccb.org/Guidelines-for-Receiving-Pastoral-Ministers-in-the-p/7-462.htm>

- 미국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 예비 보고서.

Asian Pacific Islander 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port. Prepared by Jerry Z. Park, W. Matthew Henderson, Kenneth Vaughan, Tricia Bruce, and Stephen Cherry. Washington, DC: USCCB, 2015.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resources/upload/Asian-Pacific-Islander-Catholics-in-the-United-States-A-Preliminary-Report.pdf>

- 선교하는 제자로 살기: 선교를 위한 자료.

Living as Missionary Disciples: A Resource for Evangelization. Washington, DC: USCCB Committee on Evangelization and Catechesis, 2017. <http://ccc.usccb.org/flipbooks/living-as-missionary-disciples/files/assets/basic-html/page-1.html#> or <http://store.usccb.org/Living-as-Missionary-Disciples-p/7-558.htm>

부록 4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협회들, 기구들, 그리고 운동들
(Movements)*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네트워크

Asian and Pacific Catholic Network

<http://www.facebook.com/APCN-366177420165506/>

- 미국 베트남 가톨릭 협회

Federation of Vietnamese 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http://www.liendoanconggiao.net>

- 몽족 아메리칸 전국 가톨릭 협회

Hmong American National Catholic Association

www.hanca.us/about-hmong/history

- 인도 아메리칸 가톨릭 협회

<http://www.iacausa.org>

- 북미주 한인 사제 협의회

Korean American Priests Association

http://nacopkm.org/org_intro.asp

- 라오스 전국 가톨릭 협회

Laotian National Catholic Conference

- 전국 필리핀 사제 협의회-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Filipino Priests-USA

www.nafp-usa.org/nafp-usa

● 전국 버마 아메리칸 가톨릭 협회

National Conference of Burmese-American Catholics

www.nabac.us/AboutUs.html

● 북미주 중국인 가톨릭 사도직

North America Chinese Catholic Apostolate

<http://nacca.sfchinesecatholic.org>

● 베트남 성체적 청소년 운동

Vietnamese Eucharistic Youth Movement

<http://www.tntt.org/>

● 그리스도를 위한 커플들

Couples for Christ

<http://couplesforchristusa.org/>

‘그리스도를 위한 커플들’은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가 승인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국제 사립 협의회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쇄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톨릭 기구”이다. 1981년 필리핀에서 열여섯 부부가 기도 그룹의 일부로서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 그룹은 “*Ligaya ng Panginoon*”(주님의 기쁨, Joy of the Lord)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커플들’은 1993년에 *Ligaya ng Panginoon* 으로부터 분리되어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참조 “CFC의 간략한 역사” “Brief History of CFC,” Couples of Christ USA, accessed July 14, 2017, <https://couplesforchristusa.org/>).

*다른 전국 가톨릭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협의회, 기구, 운동들은 정보를 얻는 대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수록될 것임.

측면 보조란 (Sidebars)

Sidebar 1

미국 가톨릭 신자 인구:
인종, 민족, & 출생지 그룹 추정치, 2013

	Population	Catholic Population
<i>White (non-Hispanic)</i>	201,603,212	43,546,293
<i>Black, African American, African, Afro Caribbean</i>	39,875,893	2,990,692
<i>Black, African American, African, Afro Caribbean (non-Hispanic)</i>	38,602,187	2,142,422
<i>Born in Africa</i>	1,280,200	337,973
<i>Asian, Native Hawaiian, Pacific Islander*</i>	15,584,203	2,976,583
<i>Filipino</i>	3,499,921	2,267,949
<i>Vietnamese</i>	1,779,679	494,750
<i>Chinese</i>	4,107,621	349,148
<i>Korean</i>	1,748,324	204,554
<i>Native Hawaiian/Pacific Islander</i>	553,144	151,009
<i>Indian</i>	3,260,460	149,981
<i>Japanese</i>	1,336,000	57,448
<i>Hispanic, Latino</i>	51,704,967	30,454,225
<i>Native-born</i>	30,639,814	16,422,941
<i>Foreign-born</i>	21,065,153	14,029,392
<i>American Indian, Alaskan Native</i>	3,003,546	549,649

* 상당한 수의 아시안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지역 출신 아메리칸이 다수의 인종, 민족, 그리고 조상의 정체성을 소유한 관계로, 소그룹의 합은 전체 아시안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지역 그룹 총 인구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출처: Mark Gray, Mary Gautier, and Thomas Gaunt, SJ.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in the Church June 2014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 [CARA], 2014) p. 10.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의 웹사이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의 인구 자료와 연결되어 있다: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demographics/index.cfm>.

Sidebar 2

가장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가 속해 있는 미국의 열다섯 개 (대)교구들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Asian Pacific Island Catholic: APIC) 신자 총 인구의 63 퍼센트를 차지한다.

50,000 명 이상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을 보유한 (대)교구들	APIC 인구	주 (State)
Los Angeles	358,525	CA
Brooklyn	154,590	NY
San Jose	142,663	CA
Honolulu	142,008	HI
Oakland	139,228	CA
Orange	135,148	CA
San Francisco	117,073	CA
Seattle	110,184	WA
Sacramento	92,447	CA
San Diego	87,546	CA
Galveston-Houston	75,910	TX
New York	72,425	NY
San Bernardino	67,385	CA
Chicago	66,060	IL
Arlington	53,477	VA
Total	1,814,669	
총 APIC 추정지 (All APIC est.)	2,976,583	

출처: “가장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가 속해 있는 미국의 열다섯 개 (대)교구들, Fifteen Arch(Dioceses) with the Most Asian and Pacific Island Catholics,”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accessed June 26, 2017,

<http://uscg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demographics/index.cfm>.

Sidebar 3

지역-차원 결과

이 부분의 보고서는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주교회의 각 지역의 소그룹 인구 추정치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들이 소재한 본당 숫자들도 제시한다. 지역 XV는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지리적인 지역이 아니고 교회적 관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인구의 미국 주교회의 지역별 추정치

미국 주교회의 지역*	아시아인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인구	APIC 공동체를 사목하는 본당 수 **	본당 별 인구
I	90,758	16	5,672
II	284,373	18	15,799
III	125,319	42	2,984
IV	140,443	34	4,131
V	51,036	19	2,686
VI	78,241	12	6,520
VII	148,009	21	7,048
VIII	41,461	4	10,365
IX	47,079	17	2,769
X	207,312	49	4,231
XI	1,430,779	105	13,627
XII	168,013	19	8,843
XIII	102,597	13	7,874
XIV	180,103	21	8,576

* 지역들의 총 합계는 전국 차원 추정치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숫자들은 매우 유사하다. 전국 총 합계는 전국-차원 제휴 추정량 (national-level affiliation estimators). 지역의 총 합계는, 합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역 추정량에 근거했다.

** 아시안 가톨릭 신자를 사목하는 많은 본당들이 하나 이상의 그룹을 사목한다 (390 개의 본당들이 436 공동체들을 사목한다).

출처: Gray, Gautier, and Thomas Gaunt, SJ, *교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in the Church*, p. 19.

◎ 미국 주교회의의 지역

- I (CT, MA, ME, NH, RI, VT)
- II (NY)
- III (NJ, PA)
- IV (DC, DE, MD, VA, VI, WV)
- V (AL, KY, LA, MS, TN)
- VI (OH, MI)
- VII (IL, IN, WI)
- VIII (MN, ND, SD)
- IX (IA, KS, MO, NE)
- X (AR, OK, TX)
- XI (CA, HI, NV)
- XII (AK, ID, MT, OR, WA)
- XIII (AZ, CO, NM, UT, WY)
- XIV (FL, GA, NC, SC)
- XV (동방 전례)

Sidebar 4

미국 내에 있는, 인도에서 온 동방 가톨릭교회, 2017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도의 그리스도교 역사가 “세 개의 별개 자치구 (sui iuris) 교회들이 존재하게 했으며, 이는 같은 신앙이 세 가지 전례적, 영성적, 신학적, 그리고 규율적 전통에 따라 다른 의식으로 기념되는 교회적 표현에 해당한다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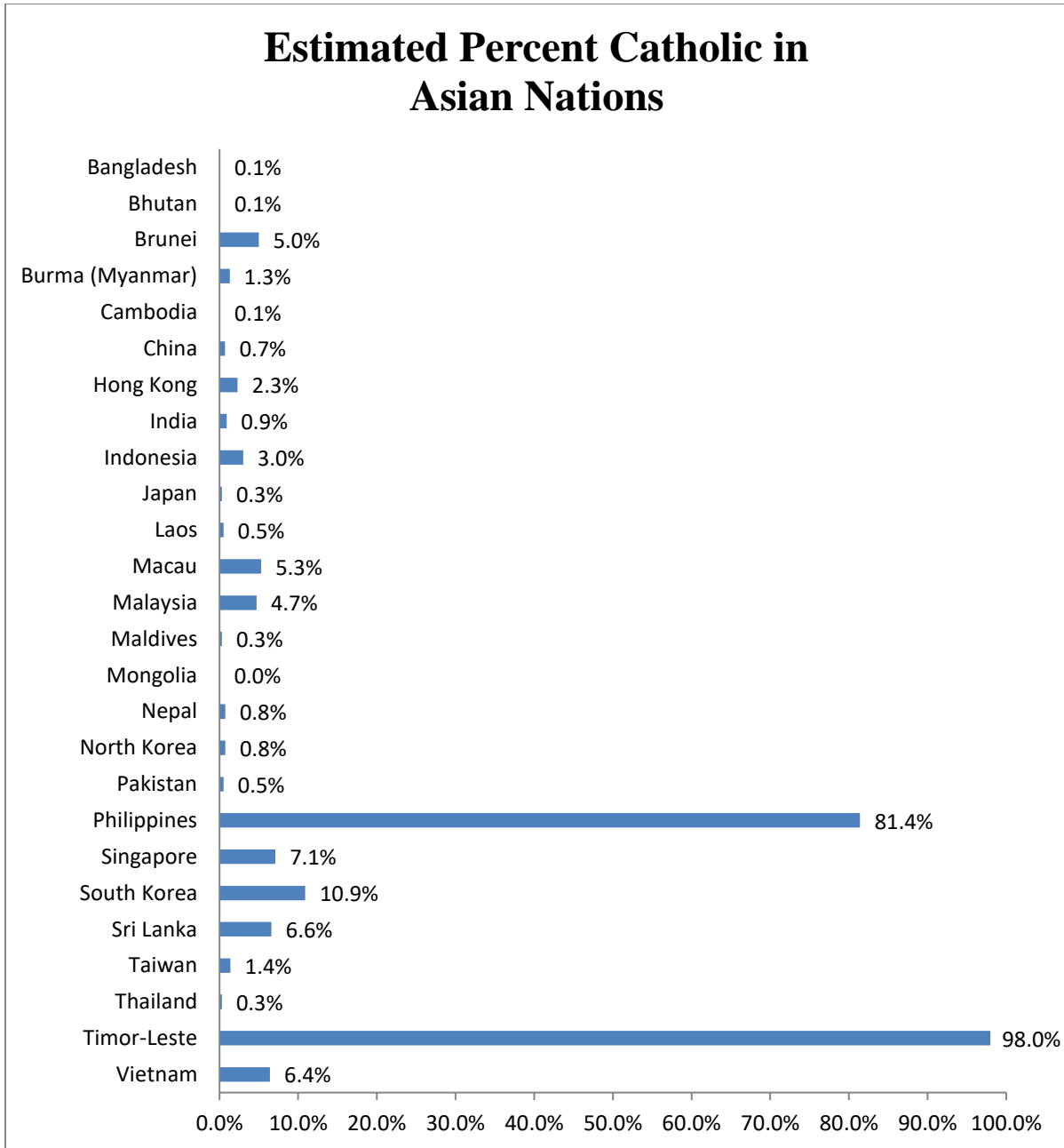
지적하는데, 이는 곧 라틴 의식과 시로-말라바르와 시로-말란카라 동방 가톨릭 교회들이다. “미국에는 87,000 시로-말라바르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이는 미국 내 동방 가톨릭의 14%를 차지한다. 이들은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성 토마스 사도 시로-말라바르 주교구 (Syro-Malabar Eparchy of Saint Thomas the Apostle of Chicago)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교구는 48 명의 교구 사제, 15 명의 수도 사제, 21 명의 수녀, 그리고 9 명의 신학생이 사목하고 있는 36 개 본당과 25 개 공소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시로-말란카라 공동체는 뉴욕의 엘몬트 (Elmont)에 기반을 둔 성 마리아 평화의 모후 시로-말란카라 주교구 (Syro-Malankara Eparchy of Saint Mary Queen of Peace)내에 11,500 명의 교우가 있다. 이는 미국 내 동방 가톨릭 인구의 2%를 차지한다. 시로-말란카라 주교구는 18 명의 교구 사제, 한 명의 수도 사제, 34 명의 수녀, 그리고 두 명의 신학생이 16 개 본당과 3 개의 공소를 사목하고 있다.”²

¹ 프란치스코 교황, 인도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2017년 10월 9일,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letters/2017/documents/papa-francesco_20171009_vescovi-india.html.

² Ron Roberson, CSP, email message October 17, 2017.

Sidebar 5

아시아 국가들의 가톨릭 신자 비율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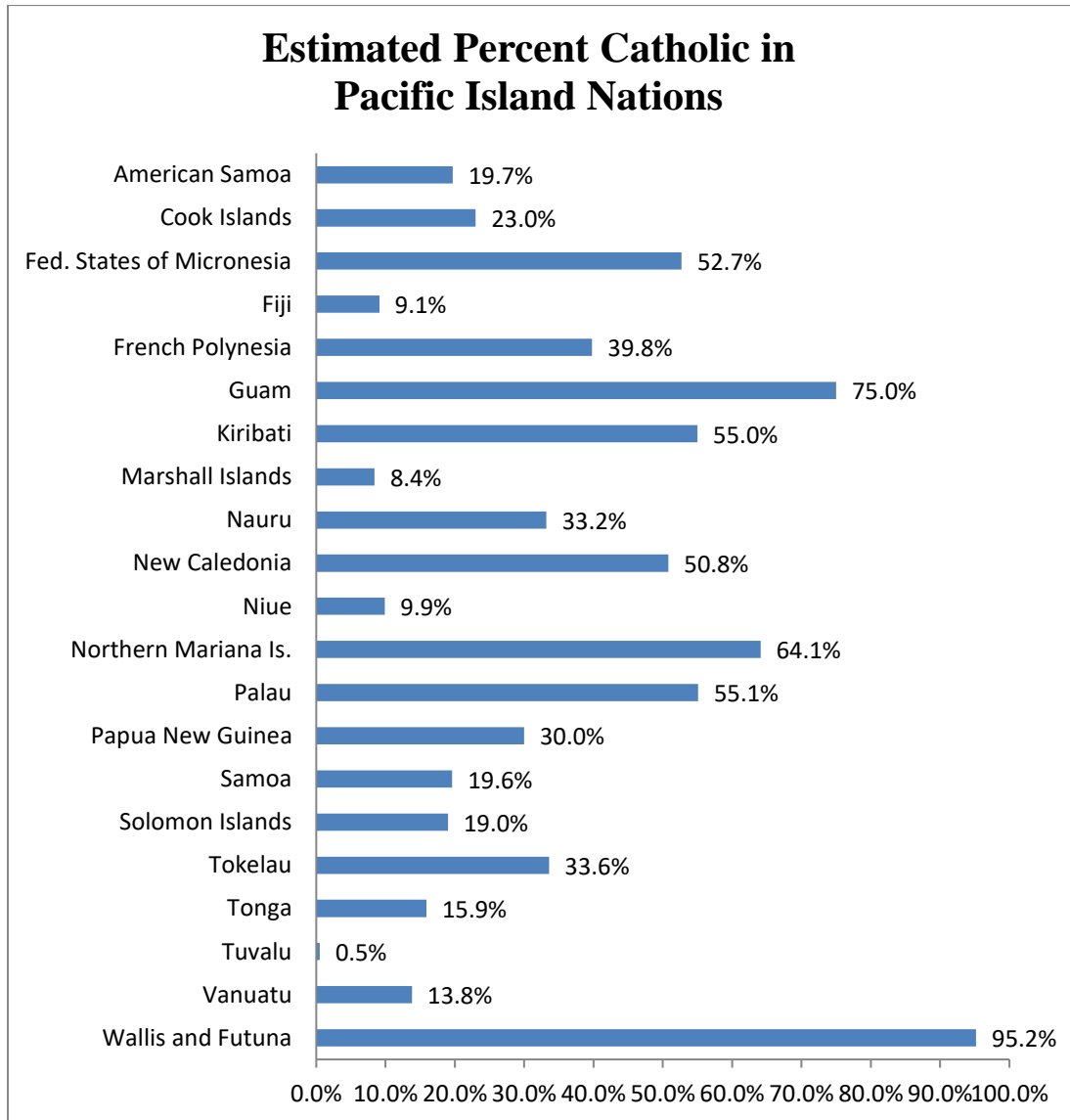


출처: Jerry Z. Park, W. Matthew Henderson, Kenneth Vaughn, Tricia Bruce, and Stephen Cherry, Asian Pacific Islander 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port 2015, p. 5 (citing Pew Research Center’s study of global religion, “Global Christianity-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Christian Population (전 세계 그리스도교-세계

그리스도인 인구의 규모와 분포),” Table: Christian Population as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by Country (표: 국가별 총 인구 수 대비 그리스도인 비율), December 2011).

Sidebar 6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가톨릭 신자 비율 추정치



출처: Park et al, Asian Pacific Islander 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Report 2015, p. 9 (citing Pew Research Center’s study of global religion, “Global Christianity-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World's Christian Population (전 세계 그리스도교-세계 그리스도인 인구의 규모와 분포),” Table: Christian Population as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by Country (표: 국가별 총 인구 수 대비 그리스도인 비율), December 2011).

Sidebar 7

미국에 필리핀 사람들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

미국에 필리핀 사람들이 등장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1587 년이다. 그들은 스페인의 갈레온선 *Nuestra Señora Esperanza* 의 선원들이었는데 이들이 새로운 스페인 (New Spain)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연안의 모로 만(Morro Bay)에 작은 정착지를 형성했다. 갈레온선의 필리핀 선원들에 의해서 더욱 확고하게 세워진 정착지는 1763 년 루이지애나의 성 베르나르도 본당 (St. Bernard Parish)에서 였다.

Sidebar 8

인종차별의 정의

“인종차별은 인종에 따라 어떤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월등하고 어떤 이들은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죄이다. 이 죄는 인종적인 특징을 인간의 권리 행사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만든다...우리 사회의 구조들은 미묘하게 인종차별적인데, 이런 구조들은 사회가 지지하는 가치들을 반영한다. 그것들은 다수의 성공과 소수의 실패에 맞춰져 있다. 두 그룹의 구성원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부지중에 승인하고 만다. 어쩌면 누군가의 잘못은 아닐 지도 모른다. 종종 익명의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다. 이 죄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각자가 어느 만큼은 책임이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공범자다. 도덕적 가치에 관한 우리의 최근 사목 서한이 말하듯이: ‘악에 대해서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모든 책임중의 하나도 사면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치지 않은 불의에 대해 저항해야 하고 그것의 근절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방관자가 되고 그 죄를 분담하게 된다 .’ ”

—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 서한’에서 발췌 (from *Brothers and Sisters to Us: U.S. Catholic Bishops Pastoral Letter on Racism*, 1979)

고 프란시스 죠지 추기경은 인종차별은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인 인간의 분리, 투쟁, 그리고 분열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조화와 사랑으로 살기를 의도하셨지만, 인간들은 그들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조화 대신 분리로, 일치 대신 투쟁으로, 공동체 대신 분열로 대체했다. 인간의 분리, 투쟁, 그리고 분열의 한 형태가 인종차별이다: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 (창세 1:27)” (발췌: *내 사랑에 머물러라, 인종차별에 대한 사목 서한*, from *Dwell in My Love, A Pastoral Letter on Racism*, by Francis Cardinal George, OMI † [Archdiocese of Chicago, 2011].

Sidebar 9

문화적 대표들을 토론의 장으로 초청하기

지리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큰 교구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혹은 구체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조언 그룹이나 협의회를 교구 주교의 자문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다. 이 자원봉사 협의회는 각각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공동체의 대표를 포함한다. 이 협의회는 일 년에 서너 번 만나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의 삶에 그 지역 출신자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구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 교회법상의 자문 기구들, 즉 교구와 본당의 사목협의회는 더 많은 문화적 대변(對辯)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교회법 CIC 512, 536 참조). 끝으로, 회의에서 기록된 보고서는 교구 전체와 가정사목, 청소년 사목, 성소국을 포함하는 교구의 다른 기관에 배부될 수 있다.

Sidebar 10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종차별의 죄에 대응하기

“인종차별이라는 악을 극복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 3:28).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명확하게 말했듯이,

‘우리의 정신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마음이 향할 유일한 방향은 우리의 구원자,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구원자, *Redemptor Hominis*, no. 7).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중추적인 원인을 찾는다.”

—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 서한’에서 발췌 (from *Brothers and Sisters to Us: U.S. Catholic Bishops Pastoral Letter on Racism*, 1979)

Sidebar 11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개인으로서, 우리는 인종적 선입견과 인종적 비아냥이나 농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인간 가치관과 각각의 인종 그룹이 우리 나라에서 보여주는 문화적 기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 서한’에서 발췌 (from *Brothers and Sisters to Us: U.S. Catholic Bishops Pastoral Letter on Racism*, 1979)

Sidebar 12

본당 차원에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우리는 인종적 소수자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학교, 대학교, 사회 사업 기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가톨릭 기관들의 방침이 직원들을 위한 정의와 그들의 권리 존중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지 스스로 검토할 것을 특별히 요청한다. 우리는 투자 운용 자산 구성 (Investment Portfolio)이 인종 차별하는 기관이나 정책을 부주의하게 지원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종교 단체의 자본이 협동조합 (Cooperatives)이나 토지신탁 (Land Trust)이나 빈민층을 위한 주택 (housing for the poor)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톨릭 기관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 철폐 조치 (affirmative action)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업체나 산업의 서비스를 피하고, 교회 자신이 동등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주로서 항상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의 사목 서한’에서 발췌 (from *Brothers and Sisters to Us: U.S. Catholic Bishops Pastoral Letter on Racism*, 1979)

Sidebar 13

문화적 공유와 풍요

가정에서나 본당에서의 환대 행위를 연결해주는 한 가지 예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관습적 인사들이다. 예들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일본식 절인데, 이는 포옹보다는 더욱 적절한 형태의 인사로 간주된다. 다른 예는 폴리네시아의 인사인 호니 (*honi*)로서, 이는 양 편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상대방의 코를 누르며 동시에 숨을 들이 마시는데, 이는 숨과 생명의 교환을 표시한다. 본당 전체 행사의 시작에, 여러 문화 그룹의 대표자들이 문화적 공유와 풍요의 도구로서 각자의 환대 제스처를 전체 공동체에 소개할 수 있다. 여러 문화 그룹들이 일 년의

다른 시기 중에 사목적 상황에 따라, 추수감사절, 선물 주기 (gift-giving), 음식 축복과 애도의 제스처 같은 다른 범주의 제스처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다.

Sidebar 14

자료 예들

자료 센터에서 모을 수 있는 많은 자료 중에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하십시오.

- 본토 언어로 쓰여진 출판물 (인쇄물과 디지털)
- 예배 및 전례 자료 (즉, 예배 보조물, 성가책, 성경 번역본, 공식적인 서적 번역본)
- 어린이, 청년, 예비자 교리를 위한 교리교육 자료

Sidebar 15

전례를 위한 문화 예술 형태

전례 공간 내에서 문화 예술 형태들을 접목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The General Instruction of the Roman Missal (GIRM)*, nos. 288-318; 그리고 ‘살아 있는 돌들로 지어진: 예술, 건축, 예배 (*Built of Living Stones: Art, Architecture, and Worship*)’ (NCCB/USCC, 2000)).

Sidebar 16

성 요셉 통가 가톨릭 여성 그룹 (St. Joseph Tongan Catholic Women’s Group)

성 요셉 통가 가톨릭 여성 그룹은 매년 통가 가톨릭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 요셉 축일을 기념하고, 통가 교구가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는 것을 보조하는 기금을 모금한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에 제출한 통가 사목 보고서에서 발췌 from the Tongan Ministry Report, US Tongan National Adviser, 2010, to th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Island Affairs).

Sidebar 17

좋은 건강의 성모님, 바일란카니 **Our Lady of Good Health, Valiankanni** (인도의 한 도시)

매년 구월 첫 토요일에, 인도 아메리칸 가톨릭 협의회는 와싱턴 디씨에 위치한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국립 성지 대성당에 가는 성지순례를 주관한다.

순례객들은 앵글로 인도인 (Anglo-Indians), 고아인 (Goans), 망갈로리언
(Mangaloreans), 스리랑카인, 타밀 사람 (Tamils), 케랄라이트 (Keralites),
동인도인, 벵갈 사람 (Bengalis), 파키스탄인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하루 동안,
행렬하며 묵주기도 하기, 고해성사, 어린이 축복식, 미사 거행에 참여한다.

Sidebar 18

보편 지향 기도

주일 미사 중에, 다가오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축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청원을 보편 지향 기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9 월
20 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축일을 기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온 세상의 한국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신앙이 한국 순교 성인들의 전교와 예언자적 증거의 모범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Sidebar 19

미국의 몽족 (Hmong) 가톨릭 공동체 내에서의 지도자 양성

현재 미국에는 몽족 아메리칸 사제가 없지만, 한 명의 몽족 일시 부제 (transitional
deacon)가 세인트 폴과 미니애폴리스 대교구 (Archdiocese of St. Paul and
Minneapolis)에 있다. 격년으로 몽족 아메리칸 가톨릭 신자들은 전국 집회 (national
convention)와, 그들의 부제와 교리교사, 그리고 본당, 청년, 청소년 사목자들을
위한 양성 트랙을 포함하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인다.

Sidebar 20

가족의 일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직자와 남/녀 수도자들은 종종 친가족의 일부로 여겨진다.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기대치를 수반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는, 기도 생활이 촉진되도록 돕고, 식별이나 위기의 시기에 지도와 지혜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Sidebar 21

사목자를 받아 들이는 가이드라인

“외국에 있는 사목자들은 늘 미국 가톨릭 교회 구조의 일부분이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신앙을 들여오는데 도구 역할을 했고, 그 신앙이 양분을 섭취하도록 도왔으며,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다. 프란시스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 (St. Frances Xavier Cabrini)부터 해서 마더 테오도로 케린 성녀 (St. Mother Theodore Guerin)까지, 이사악 조그 성인 (St. Isaac Jogues)부터 요한 노이만 성인 (St. John Neumann)과 다미엔 디 뷰스터 성인 (St. Damien de Veuster)까지, 많은 미국의 성인들은 외국에 있던 사목자들이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의 시대부터 오늘 날까지, 다른 나라와 문화로부터 온 수많은 이들의 사목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 왔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들의 다양함과 풍요로움은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고마워하고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게끔 도움을 주어왔다.

— *미국에 사목자를 받아 들이는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Receiving Pastoral Minister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CCB, 2014), p. A-1. <http://ccc.usccb.org/flipbooks/cclv-guidelines/#1>.

Sidebar 22

“체면치레 (Saving Face)”

체면치레는 문화간 소통 역학 (dynamic)이다. 개인적이나 공동체적인 성향은 “어떻게 한 문화가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처신하는가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¹ (사목자를 위한 문화 간 능력 개발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 2012). 이는 직, 간접적 소통 테크닉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용어로 번역된다. 많은 개인적 문화 내에서는 더 직접적인 소통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공동체적 성향을 가진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문화권에서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소통과 더 많은 신체적 언어 (body language)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조화를 제시하기 위해, 갈등이나 수치를 암시하는 표정을 감추기도 한다. 자신의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피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숨김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도 한다. 어디에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체면치레는 많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문화권에서 매우 흔한 관행이고 그들이 직장, 공동체, 본당, 그리고 예배 환경에서 서로 관계하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가톨릭 교육성성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문화 간의 접근 (Intercultural Approach, 2013)’에서 “오늘날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증가했으며, 문화 간 대화의 새 통로들을 촉발시키고 있다: 대화는 효과적이기 위해, 여러 대화 상대자들의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상기시켜 준다.

¹ Stella Ting-Toomey 를 참조하시오: “표정의 매트릭스: 갱신된 표정-협상 이론 The Matrix of Face: An Updated Face-Negotiation Theory”: ‘사목자를 위한 문화 간 능력 개발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 (from the Committee on Cultural Diversity in the Church)에 의해 인용됨.

Sidebar 23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신자의 활동과 행사의 예들

미국 주교회의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소위원회는 미국 전역에서 거행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출신 가톨릭 공동체들의 최신 정기행사 일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행사들이 당신의 교구 내에서나 근처에서 열리면, 그것을 홍보하거나 광고해줄 것을 고려하시오. <http://www.usccb.org/issues-and-action/cultural-diversity/asian-pacific-islander/news/index.cfm>